

소규모 미술관의 공간 경계 완화 디자인 특성에 관한 사례분석 연구

Design Characteristics of Spatial Boundary Blurring in Small Art Museums: A Case Analysis

주 저 자 : 추이완리 (Cui, Wan Ying) 동의대학교 디자인학과 박사과정

교 신 저 자 : 김민우 (Kim minwoo) 동의대학교 예술디자인체육대학 디자인조형학과
kim1980@deu.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6.3.770>

접수일 2026. 08. 19. / 심사완료일 2026. 09. 12. / 게재확정일 2026. 09. 14. / 게재일 2026. 09. 30.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spatial boundary blurring in the interior spaces of small art museums. Based on previous studies, a total floor area of less than 1,000m² was adopted as the case-selection scope, and six cases, including five in Korea and one in Japan, were selected. Four analytical dimensions—physical, visual, circulation, and perceptual—and twelve detailed indicators were consistently applied to all cases. Spatial expressions identified in photographs, drawings, and design descriptions were compared across the cases. The results showed that horizontal and vertical connections and natural light and light-shadow conditions were identified in all six cases, while openings, visual connections, relationships with exterior spaces, and spatial depth and levels were repeatedly observed in multiple cases. Based on these findings, four design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visual openness and continuity, spatial and circulation connectivity, perceptual expansion, and multidimensional overlap.

Keyword

Small Art Museums(소규모 미술관), Spatial Boundary Blurring(공간 경계 완화), Design Characteristics(디자인 특성)

요약

본 연구는 소규모 미술관의 실내공간을 대상으로 공간 경계 완화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면적 1,000m² 미만을 사례 선정 범위로 설정하고, 국내 5개 사례와 일본 1개 사례를 선정하였다. 물리적·시각적·동선적·지각적 분석 차원과 12개 세부지표를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진·도면 및 설계 설명자료에서 확인되는 공간 표현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수평·수직 연결과 자연광·명암은 6개 사례 모두에서 확인되었으며, 개구부·시선 연결·외부공간 관계 및 공간 층위는 다수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시각적 개방·연속성, 공간·동선 연결성, 지각적 확장성 및 다차원적 중첩성의 네 가지 디자인 특성을 도출하였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 2-1. 소규모 미술관의 개념 및 공간 특성
- 2-2. 공간 경계의 개념 및 형성 관계
- 2-3. 공간 경계 완화의 개념 및 표현 방식
- 2-4.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 차별성

3. 사례 선정 및 분석 프레임

- 3-1. 사례 선정 기준 및 사례 개요

- 3-2. 소규모 미술관의 공간 유형 구분
- 3-3. 공간 유형별 경계 분석 관점
- 3-4. 공간 경계 완화의 분석 차원
- 3-5. 사례분석 지표

4. 소규모 미술관 공간 경계 완화 사례분석

- 4-1. Mecenat Art Museum
- 4-2.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 4-3. 안상철미술관
- 4-4. 토탈미술관
- 4-5. 소다미술관
- 4-6. 유동룡미술관
- 4-7. 사례 간 비교 및 종합분석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대 미술관은 작품을 전시하는 기능을 넘어 관람객의 이동, 체류 및 공간 경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미술관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전시, 이동, 체류 등의 기능을 수용해야 하므로 각 공간의 독립적인 구성뿐만 아니라 공간 간 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¹⁾

소규모 미술관에서는 공간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벽체, 개구부, 전이공간과 같은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시선, 동선, 자연광 및 외부공간과의 관계가 공간구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간 경계는 서로 다른 영역을 구분하는 기능을 가지지만, 투명성, 개구부, 공간의 중첩과 연결을 통해 분리와 연결의 정도가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다.²⁾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 경계의 완화는 경계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공간 사이의 물리적·시각적·동선적·지각적 관계를 조절하는 공간구성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소규모 미술관의 공간구성과 공간체형, 건축공간의 경계와 투명성, 전시공간의 구조와 관람객 이동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³⁾⁴⁾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각각의 공간구성, 경계 또는 동선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동일한 분석기준을 복수의 소규모 미술관 사례에 적용하여 공간 경계의 다양한 관계를 함께 비교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소규모 미술관에서 공간 경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조절되고, 사례 간 어떠한 공간 표현이 반복되거나 차

이를 보이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규모 미술관의 실내공간을 대상으로 공간 경계 완화의 표현 방식을 분석하고, 사례 간 비교를 통해 공간 경계 완화 디자인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간 경계와 경계 완화의 개념 및 분석 관점을 정리하고, 모든 사례에 동일한 분석지표를 적용하여 공간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를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미술관의 공간 계획에서 공간 간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적인 디자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소규모 미술관의 실내공간으로 한정하였다. 전시 영역, 동선 영역, 체류 및 체험 영역, 복합 영역에서 나타나는 공간 간 경계 관계를 분석하며, 미술관의 운영 방식, 전시 기획 및 건축 외관은 연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사례의 규모는 선행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면적 1,000㎡ 미만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소규모 미술관의 보편적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의 사례 선정 범위이다.

사례는 연구 목적과 자료 확보 가능성을 고려한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미술관 및 공공기관의 공식 자료, 건축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사무소 자료 및 전문 건축매체를 통해 후보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공간 기능의 명확성, 연면적, 기본 건축정보 및 분석자료의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국내 5개 사례와 일본 1개 사례, 총 6개 사례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사례 선정 기준과 과정은 제3장에서 제시한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정성적 사례분석을 병행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소규모 미술관, 공간 경계 및 공간 경계 완화의 개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적·시각적·동선적·지각적 분석 차원과 세부지표를 구성하였다. 동일한 세부지표를 6개 사례에 적용하여 사진, 평면도, 단면도 및 설계 설명자료에서 확인되는 공간 표현을 비교하였다.

사례 간 비교에서는 각 세부지표의 확인 여부와 사례별 확인 수를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간 표현과 사례별 차이를 파악하였다. 세부적인 판단기준

- 1) 김영조, '소규모 미술관의 전시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7, pp.31-32
- 2) 고경호, 김덕수, Kyeong Ho Ko, & Duk Su Kim, '건축 공간의 경계 모호성과 투명성', 한국공간디자인학회, Vol.7, No.1, 2012. 07. pp.143-144
- 3) 최진석, 김문덕, '국내 소규모 미술관의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공간체험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Vol.12, No.3, 2010. 10. pp.169-170
- 4) 임채진, 박무호, '박물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객 움직임의 상관성 (I)',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Vol.22, No.10, 2006. 10. pp.169-173

과 분석방법은 제3장에서 구체화하였으며, 사례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 경계 완화 디자인 특성을 도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소규모 미술관의 개념 및 공간 특성

소규모 미술관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미술관에 비해 제한된 공간 규모 안에서 전시와 관람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미술관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규모 미술관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면적 기준은 명확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 목적과 대상에 따라 규모의 구분 방식도 다르게 나타난다. 최근 국외 연구에서도 'small museum'의 정의는 면적뿐만 아니라 운영 규모, 인력, 기능 및 지역적 조건 등 다양한 기준과 관련되어 있어 단일한 기준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⁵⁾

국내 연구에서도 미술관의 규모 기준은 서로 다르게 제시되어 왔다. 심승현·윤성호는 뮤지엄의 규모를 연면적에 따라 구분하면서 1,500㎡ 미만을 초소형 규모로 분류하였다.⁶⁾ 김영조는 소규모 미술관의 공간구성을 검토하면서 약 1,000㎡ 내외의 연면적을 소규모 미술관의 규모로 다루었다.⁷⁾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1,000㎡ 미만을 소규모 미술관의 보편적 정의로 규정하지 않고, 연구 목적에 따른 사례 선정 범위로 활용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3-1절에서 제시한다.

소규모 미술관은 제한된 면적 안에서 여러 기능을 수용해야 하므로 공간구성과 이용 방식에서도 특징이 나타난다. 최진석·김문덕은 소규모 미술관에서 공간구조가 압축·통합되거나 개방 및 가변적인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다양한 공간체험 요소가 활용된다고 설명하였다.⁸⁾ 이는 소규모 미술관의 공간구성이 전시공

간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이동과 공간 경험을 함께 고려하여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규모 미술관을 분석할 때에는 개별 공간의 기능적 구분뿐만 아니라 전시, 이동, 체류 등의 기능이 서로 인접하거나 중첩되는 공간 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규모 미술관의 실내공간을 기능에 따라 구분하고, 각 공간 사이에서 나타나는 경계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2. 공간 경계의 개념 및 형성 관계

공간 경계는 서로 다른 공간 영역을 구분하고 공간 간 관계를 형성하는 요소이다. Kevin Lynch는 도시 공간을 인지하는 구성요소 중 하나로 경계(edge)를 제시하고, 경계가 서로 다른 영역을 구분하며 공간구조를 인식하는 데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⁹⁾ 이러한 관점에서 경계는 단순한 분리선이 아니라 공간의 구분과 관계 형성에 관여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건축 공간에서 경계는 벽체, 칸막이, 문과 창호와 같은 물리적 요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고경호·김덕수는 현대 건축공간에서 투명성, 공간의 중첩과 침투, 내·외부 공간의 연속적 관계에 따라 경계가 다양한 정도로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¹⁰⁾ 따라서 공간 경계는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시각적·동선적·지각적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술관 공간에서는 전시공간의 구성과 관람객의 이동이 밀접하게 관련된다. 임채진·박무호는 박물관 전시공간의 공간구조와 관람객 움직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공간의 연결방식과 동선구조가 관람객의 이동과 관련됨을 제시하였다.¹¹⁾ 소규모 미술관에서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전시, 이동, 체류 등의 기능이 인접하거나 중첩될 수 있으므로 공간 간 경계 역시 다양한 공간 관계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

나타나는 공간체험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Vol.12, No.3, 2010. 10. pp.169-170

9) 케빈 린치, 허샤오젠 역, 『도시의 이미지』, 중국 화하출판사, 2001, pp.50-52

10) 고경호, 김덕수, Kyeong Ho Ko, & Duk Su Kim, '건축 공간의 경계 모호성과 투명성', 한국공간디자인학회, Vol.7, No.1, 2012. 07. pp.143-144

11) 임채진, 박무호, '박물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객 움직임의 상관성 (I)',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Vol.22, No.10, 2006. 10. pp.169-173

5) JAGOŠOVÁ, Lucie, 'The concept of small museums from an international and local perspective: starting points for further research in the Czech Republic', Muzeológia a kultúrne dedičstvo, Vol.11, No.4, 2023. 11. pp.45-58

6) 심승현, 윤성호, '뮤지엄 면적산정의 지표로서의 인원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Vol.-, No.1, 1998. pp.87-94

7) 김영조, 소규모 미술관의 전시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7, pp.31-32

8) 최진석, 김문덕, '국내 소규모 미술관의 실내공간에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규모 미술관의 공간 경계를 물리적·시각적·동선적·지각적 관계의 측면에서 파악한다. 물리적 관계는 벽체, 개구부 및 전이공간, 시각적 관계는 시선 연결, 투명성 및 재료·마감, 동선적 관계는 입구와 전이 동선, 수평·수직 연결 및 이동 경로, 지각적 관계는 자연광, 외부공간과의 관계, 공간의 깊이·높이·층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내용은 제3장의 사례분석 관점과 세부지표를 구성하는 기초로 활용한다.

2-3. 공간 경계 완화의 개념 및 표현 방식

본 연구에서 공간 경계 완화는 공간의 기능적 구분을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공간 사이의 단절 정도를 조절하고, 물리적·시각적·동선적·지각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조정하여 공간 사이의 분리와 연결 정도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건축공간의 경계는 벽체와 같은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투명성, 개구부, 공간의 중첩과 침투, 내·외부 공간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형성될 수 있다. 고경호·김덕수는 건축공간에서 경계의 모호성과 투명성을 공간 간 관계와 관련된 요소로 설명하였다.¹²⁾ 이러한 관점에서 개구부, 반개방적 경계, 투명 요소 및 시선 연결은 물리적 구분을 유지하면서 인접 공간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임채진·박무호는 전시공간의 공간구조와 관람객 움직임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공간의 연결방식과 동선구조가 관람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제시하였다.¹³⁾ 입구와 전이공간, 복도, 계단 및 램프 등은 이동 경로를 구성하면서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하는 경계 관계와 관련된다. 또한 소규모 미술관의 공간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는 공간구성, 이동, 빛, 개방된 시야 및 공간의 변화가 공간 경험과 관련된 요소로 다루어져 왔다. 자연광, 외부공간과의 시각적 관계, 공간의 깊이·높이 및 레벨 변화 역시 공간 경계를 인식하는 데 관련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12) 고경호, 김덕수, Kyeong Ho Ko, & Duk Su Kim, '건축 공간의 경계 모호성과 투명성', 한국공간디자인학회, Vol.7, No.1, 2012. 07. pp.143-144

13) 임채진, 박무호, '박물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객 움직임의 상관성 (I)',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Vol.22, No.10, 2006. 10. pp.169-173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간 경계 완화를 물리적 경계, 시각적 관계, 동선 연결 및 공간 지각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이를 제3장에서 물리적·시각적·동선적·지각적 분석 차원으로 구성하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부지표로 구체화한다.

2-4.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 차별성

[표 1]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연계

구분	연구자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와의 연계
소 규모 미술관	김 영 조 (2007)	소규모 미술관의 규모 및 전시공간 구성	사례 규모·공간 가능
공간체험	최진석·김문덕 (2010)	소규모 미술관 실내공간의 공간구조 및 공간 체험 요소	공간 유형·지각 관계
공간 경계	고경호·김덕수 (2012)	건축공간의 경계 모호성 및 투명성	물리적·시각적 경계 관계
관람 동선	임채진·박무호 (2006)	박물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객 이동의 관계	동선 관계·공간 연결
미술관 공간계획	최유빈·김진호·유 영 수 (2023)	미술관 증축리모델링에서의 공간 연속성 및 프로그램 재구성	공간 관계 검토
소 규모 박물관	Jagošová (2023)	소규모 박물관의 정의 및 특성의 다양성	규모 기준의 상대성
소 규모 박물관	Tišliar·Jagošová (2024)	소규모 박물관의 정의·관라·운영 특성	최근 국외 연구 동향

선행연구에서는 소규모 미술관의 공간구성 및 공간 체험, 건축공간의 경계와 투명성, 관람객 이동과 공간 연속성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동일한 분석기준을 복수의 소규모 미술관 사례에 적용하여 물리적·시각적·동선적·지각적 공간 관계를 함께 비교하고,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간 표현과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규모 미술관의 공간 유형과 경계 관계를 정리하고, 물리적·시각적·동선적·지각적 측면을 사례분석을 위한 분석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각 분석 차원은 자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세부지표로 구체화하여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례 간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 경계 완화 디자인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사례 선정 및 분석 프레임

3-1. 사례 선정 기준 및 사례 개요

소규모 미술관의 규모 기준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다. 김영조는 소규모 미술관의 규모를 약 1,000㎡ 내외로 다루었으며,¹⁴⁾ 심승현·윤성호는 뮤지엄의 규모를 구분하면서 1,500㎡ 미만을 초소형으로 분류하였다.¹⁵⁾ 국외 연구에서도 소규모 뮤지엄에 대해 보편적으로 합의된 단일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¹⁶⁾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연면적 1,000㎡ 미만을 소규모 미술관의 보편적 정의가 아닌 사례 선정 범위로 설정하였다. 사례 간 규모 비교에서는 건축면적이나 전시면적을 혼용하지 않고 연면적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사례 선정은 소규모 미술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아니라 연구 목적과 분석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고려한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후보 사례는 미술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AURUM 등의 건축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사무소 자료 및 전문 건축매체에서 기본정보와 분석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미술관 또는 예술전시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 연면적 1,000㎡ 이상인 사례, 연면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 실내공간 분석에 필요한 도면과 설명자료가 부족한 사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례 선정 단계에서는 개구부, 채광, 시선 연결, 재료 연속성 등 특정한 경계 완화 표현의 존재 여부를 선정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각 사례의 공간 경계 표현은 사례 선정 후 동일한 분석지표를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검토한 후보 사례 중 선정 기준에 부합하고 분석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국내 5개 사례와 일본 1개 사례, 총 6개 사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본 사례는 국내 사례와 동일한 규모 및 자료 조건을 적용하여 포함하였으며, 국가 간 특성 비교는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2] 사례 선정 기준 및 적용 과정

단계	선정 기준	적용 내용
1차	공간 기능	미술관 또는 예술작품 전시가 주요 기능인 공간
2차	공간 규모	연면적 1,000㎡ 미만
3차	정보 신뢰성	위치, 연면적, 설계자, 건립·리모델링 시기 확인 가능
4차	자료 확보성	사진, 평면·단면도, 설계 설명자료 등 복수 자료 확보
최종	사례 선정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6개 사례 목적표집

사례 선정 단계에서는 특정 경계 완화 특성의 존재 여부를 선정 조건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 목적과 자료 조건을 충족하는 6개 사례를 최종 선정하였다.

[표 3] 사례 선정 과정

선정 과정	검토 내용	적용
후보 사례 수집	공식 미술관·공공기관, 건축정보 DB, 설계사무소, 전문 건축매체에서 사례 수집	후보군 구성
1차 검토	미술관 또는 예술전시 기능 확인	기능 불일치 사례 제외
2차 검토	연면적 1,000㎡ 미만 여부 확인	규모 초과면적 확인 불가 사례 제외
3차 검토	설계자, 연도, 위치 등 기본 건축정보 확인	정보 불충분 사례 제외
4차 검토	사진, 평면·단면도, 설계 설명자료 확보 여부 확인	분석자료 부족 사례 제외
최종 선정	모든 기준 충족 여부 확인	6개 사례 선정

본 연구의 사례 선정은 전체 소규모 미술관 모집단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닌 목적표집이며, 선정 결과는 연구 범위와 자료 확보 조건에 한정된다.

표 3의 과정을 통해 연구 목적과 자료 조건을 충족하는 6개 사례를 최종 선정하였다.

[표 4] 소규모 미술관 사례 개요

사례	위치	연면적	설계자	건축 시기·유형	주요 자료 출처
Mece nat Art Muse um	일본 히로 시마	191.2 4㎡	Naf Archit ect & Desig n (Tets uya Nakaz	2010 / 신축	Archisc ene

14) 김영조, 소규모 미술관의 전시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7, pp.31-32

15) 심승현, 윤성호, '뮤지엄 면적산정의 지표로서의 인원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Vol.-, No.1, 1998, pp.87-94

16) Tišliar, Pavol, Jagošová, Lucie, 'Defini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mall museums in the Czech Republic', Muzealnictwo, Vol.65, No.1, 2024, pp.117-124

성북 구립 최남미 술관	한국 서울	255.3 6㎡	이엠 에이 건축 사사 무소(EMA)	2019 / 리모델 링	AURU M, EMA, 성북문 화재단
안상 철미 술관	한국 양주	439.2 7㎡	안우 성 / 종합 건축 사사 무소 온고 당	2008 / 신축	AURU M, 양주시
도탈 미술 관	한국 서울	607.5 0㎡	문신 규	1992 / 신축	AURU M, 한국문 화예술 위원회
소다 미술 관	한국 화성	657.4 1㎡	권순 엽 / SOAP	2014 / 리모델 링	AURU M, BRIQU E
유동 룡미 술관	한국 제주	700㎡	유이 화	2022 / 신축	유동룡 미술관

사례의 면적은 자료 간 비교의 일관성을 위해 모두 연면적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선정된 6개 사례는 모두 연면적 1,000㎡ 미만이며, 이후 동일한 분석지표를 적용하여 공간 경계 완화 특성을 비교하였다.

3-2. 소규모 미술관의 공간 유형 구분

미술관은 전시, 수장, 연구, 교육, 관리, 휴게 및 이동 등 다양한 기능 공간으로 구성된다.¹⁷⁾ 본 연구는 미술관의 전체 기능 가운데 관람객이 관람 과정에서 직접 이용하고 인식하는 실내공간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미술관에서는 제한된 면적 안에서 전시, 이동, 휴식 및 체험 등의 기능이 서로 인접하거나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다.¹⁸⁾ 관람객의 이동은 전시공간의 구성 및 이용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¹⁹⁾

17) 김영조, 소규모 미술관의 전시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7, pp.31-32

18) 최진석, 김문덕, '국내 소규모 미술관의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공간체험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Vol.12, No.3, 2010. 10. pp.169-170

19) 임재진, 박무호, '박물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객 움직임의 상관성 (I)',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Vol.22, No.10, 2006. 10. pp.169-173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미술관 공간구성과 소규모 미술관의 공간 활용 특성을 바탕으로 관람객 이용 공간을 전시 영역, 동선 영역, 체류 및 체험 영역, 복합 영역의 네 가지 유형으로 재구성하였다. 전시 영역은 작품 전시와 관람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동선 영역은 입구, 로비, 복도, 계단 등 관람객의 이동과 공간 연결에 사용되는 공간이다. 체류 및 체험 영역은 휴식, 감상, 교류 및 공간 경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복합 영역은 하나의 공간에서 전시, 이동, 체류, 교육 및 교류 등의 기능이 두 가지 이상 함께 나타나는 공간으로 설정하였다.²⁰⁾

이 네 가지 유형은 미술관의 모든 공간을 기능적으로 재분류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관람객이 직접 이용하는 실내공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상의 구분이다. 하나의 공간이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 방식과 공간구성을 기준으로 해당 관계를 함께 검토하였다.

[표 5] 소규모 미술관의 공간 유형 구분

공간 유형	주요 기능	주요 구성 공간	구분 기준
전시 영역	전시·관람	전시실, 작품 관람 공간	작품 전시와 관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
동선 영역	이동·연결	입구, 로비, 복도, 계단, 램프	관람객의 이동과 공간 연결이 이루어지는 공간
체류 및 체험 영역	휴식·감상·교류	휴게 공간, 좌식 공간, 체험공간	일정 시간 머물며 감상·휴식·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
복합 영역	복합 기능	전시·동선·체류·교육 등이 중첩된 공간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동일 공간에서 함께 나타나는 공간

공간 유형은 상호 배타적인 기능 구분이 아니라 사례분석을 위한 공간 관계의 구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표 5의 공간 유형은 이후 각 사례의 공간 구성과 이용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20) 문정민, 안우진, 고성룡, '복합기능을 수용하는 소규모 및 극소규모 미술관의 단위전시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Vol., No.29, 2001. pp.181-187

3-3. 공간 유형별 경계 분석 관점

공간 경계는 벽체와 개구부 등의 물리적 요소뿐만 아니라 시선, 재료, 빛, 이동 경로 및 공간 지각의 관계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²¹⁾ 소규모 미술관에서는 제한된 면적 안에서 여러 기능이 인접하거나 중첩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공간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경계 관계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²²⁾²³⁾

본 연구는 공간 유형별로 특정한 경계 문제를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각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계 관계를 분석 관점으로 정리하였다. 전시 영역은 전시공간과 인접 공간 사이의 벽체, 개구부, 재료, 채광 및 시선 관계를 검토한다. 동선 영역은 입구와 전이공간, 복도, 계단 및 램프 등의 연결 관계와 이동 경로를 살펴본다. 체류 및 체험 영역은 자연광, 외부경관, 공간의 깊이와 높이, 인접 공간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복합 영역은 공간 경계 요소와 기능의 중첩, 공간 공유 및 이용 방식의 관계를 살펴본다.

[표 6] 소규모 미술관 공간 유형별 경계 분석 관점

공간 유형	주요 관찰 대상	경계 분석 관점	관련 경계 측면
전시 영역	벽체, 개구부, 전시면, 재료, 채광	인접 공간과의 시선 관계, 경계면 구성, 재료와 빛의 연결 관계	물리적·시각적·지각적
동선 영역	입구, 로비, 복도, 계단, 램프	공간 간 연결, 이동 경로, 전이 방식, 이동 중 시선 관계	물리적·시각적·동선적
체류 및 체험 영역	휴게공간, 좌석공간, 창, 중정, 외부경관	내·외부 관계, 공간 깊이와 높이, 빛과	시각적·지각적

21) 고경호, 김덕수, Kyeong Ho Ko, & Duk Su Kim, '건축 공간의 경계 모호성과 투명성', 한국공간디자인학회, Vol.7, No.1, 2012. 07. pp.143-144

22) 임채진, 박무호, '박물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객 움직임의 상관성 (I)',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Vol.22, No.10, 2006. 10. pp.169-173

23) 최진석, 김문덕, '국내 소규모 미술관의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공간체험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Vol.12, No.3, 2010. 10. pp.169-170

		경관을 통한 공간 지각	
복합 영역	공간 인터페이스, 유공간, 합기능	기능 중첩, 공간 공유, 개방·반개방 관계, 공간 전이	물리적·시각적·동선적

표 6의 분석 관점은 각 공간 유형의 경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며, 구체적인 경계 완화 방법은 다음 절에서 정리한다.

3-4. 공간 경계 완화의 분석 차원

공간 경계는 물리적 분리뿐만 아니라 투명성, 공간의 중첩, 이동 및 지각 관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고경호·김덕수는 건축공간의 경계가 공간의 전치, 중첩, 연속성 및 투명성에 따라 모호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²⁴⁾ 미술관 공간에서는 공간구성과 관람객의 이동이 서로 관련되며,²⁵⁾ 소규모 미술관의 공간구조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압축·통합되거나 개방적으로 구성될 수 있고 다양한 공간체험 요소가 활용될 수 있다.²⁶⁾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간 경계 완화를 물리적·시각적·동선적·지각적 분석 차원으로 재구성하였다. 물리적 측면에서는 개구부·반개방 경계, 전이공간 및 가변 경계 등 물리적 경계의 구성 방식을 검토한다. 시각적 측면에서는 시선 연결, 투명성 및 재료·마감 연속성을 살펴본다. 동선적 측면에서는 입구·전이 동선, 수평·수직 연결 및 이동 경로를 검토한다. 지각적 측면에서는 자연광·명암, 외부경관·중정과의 연결, 공간의 깊이·높이·층위를 살펴본다.

이 네 가지 분석 차원은 상호 배타적인 유형이 아니며, 동일한 공간 요소도 둘 이상의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례의 우열을 평가하기 위

24) 고경호, 김덕수, Kyeong Ho Ko, & Duk Su Kim, '건축 공간의 경계 모호성과 투명성', 한국공간디자인학회, Vol.7, No.1, 2012. 07. pp.143-144

25) 임채진, 박무호, '박물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객 움직임의 상관성 (I)',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Vol.22, No.10, 2006. 10. pp.169-173

26) 최진석, 김문덕, '국내 소규모 미술관의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공간체험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Vol.12, No.3, 2010. 10. pp.169-170

한 기준이 아니라 공간 경계 표현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표 7] 공간 경계 완화의 분석 차원

분석 차원	주요 방법	주요 관찰 내용
물리적 경계 완화	개구부, 반개방 인터페이스, 전이공간	개구부·반개방 경계, 전이공간, 가변 경계
시각적 경계 완화	시선 연결, 투명성, 재료·마감 연속성	인접 공간의 가시성, 경계면의 시각적 연속
동선적 경계 완화	입구·전이 동선, 수평·수직 연결, 경로 연속성	공간 간 이동 관계, 관람 경로의 연결
지각적 경계 완화	자연광·명암, 외부경관·중정 연결, 공간 깊이·높이·층위	공간 범위와 깊이에 대한 지각 관계

표 7의 분석 차원은 다음 절에서 세부 분석지표와 자료 확인기준을 설정하는 기초로 활용하였다.

3-5. 사례분석 지표

사례 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앞서 정리한 물리적·시각적·동선적·지각적 분석 차원을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세부지표는 공간 경계의 모호성과 투명성, 관람객 동선, 소규모 미술관의 공간체험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례 자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체화하였다.²⁷⁾²⁸⁾²⁹⁾

분석은 사진, 평면도, 단면도 및 설계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해당 공간 표현이 자료에서 직접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으로 기록하고, 확보된 자료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 어려움’으로 구분하였다. ‘확인 어려움’은 실제 공간에 해당 요소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중치 및 사례의 우열 평가는 적용하지 않았다. 동일한 공간 요소가 둘 이상의 분석 차원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각 분석 차원에서

- 27) 고경호, 김덕수, Kyeong Ho Ko, & Duk Su Kim, ‘건축 공간의 경계 모호성과 투명성’, 한국공간디자인학회, Vol.7, No.1, 2012. 07. p.143
- 28) 임채진, 박무호, ‘박물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객 움직임의 상관성 (I)’,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Vol.22, No.10, 2006. 10. p.169
- 29) 최진석, 김문덕, ‘국내 소규모 미술관의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공간체험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Vol.12, No.3, 2010. 10. pp.169-170

각각 검토하였다.

[표 8] 공간 경계 완화 사례분석 세부지표 및 자료 확인기준

분석 차원	세부 분석지표	자료 확인기준	주요 확인자료
물리적	개구부·반개방 경계	벽체·칸막이 등에 개구부 또는 반개방 경계가 확인되는지 검토	사진, 평면도
	전이공간	입구 또는 인접 공간 사이에 연결·완충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지 검토	평면도, 사진
	가변 경계	개폐·이동 가능한 경계면 또는 공간 전환이 자료에서 명확히 확인되는지 검토	평면도, 설계 설명
시각적	시선 연결	개구부나 공간 구성에 의해 인접 공간이 직접 보이는지 검토	사진, 평면도
	투명성	유리 등 투명·반투명 요소를 통한 공간 간 시각 관계를 검토	사진, 설계 설명
	재료·마감 연속성	인접 공간의 바닥·벽·천장 등에 동일·유사한 재료나 마감이 연속되는지 검토	사진, 설계 설명
동선적	입구·전이 동선	외부에서 입구와 내부 주요 공간으로 이어지는 이동 관계를 검토	평면도, 사진
	수평·수직 연결	복도, 계단, 램프 등이 주요 공간을 연결하는 방식을 검토	평면도, 단면도
	경로 연속성	주요 관람공간 사이의 이동 경로가 연속 또는 순환 형태로 구성되는지 검토	평면도, 설계 설명
지각적	자연광·명암	자연광 유입과 명암 변화가 공간 깊이와 층위 형성에 관여하는지 검토	사진, 단면도
	외부경관·중정 연결	창, 개구부, 중정 등을 통해 시선이 외부 공간으로 확장되는지 검토	사진, 평면도
	공간 깊이·높이·층위	층고, 레벨, 깊이 및 개방 정도의 변화가 공간 구성에서 확인되는지 검토	사진, 평면·단면도

표 8에 제시한 동일한 세부지표를 6개 사례에 적용하여 사례별 공간 표현을 분석하고, 사례 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간 표현과 사례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사례 간 비교에서는 각 세부지표가 확인된 사례 수를 단순 빈도로 집계하였다. 이는 지표의 중요도나 사례의 우열을 평가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이 아니라, 선정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간 표현을 파악하기 위

한 기술적 집계이다. 디자인 특성은 이러한 사례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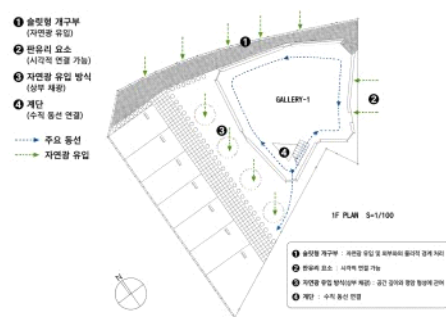
4. 소규모 미술관 공간 경계 완화 사례분석

4-1. Mecenat Art Museum

Mecenat Art Museum은 일본 히로시마에 위치한 소규모 미술관으로, Naf Architect & Design이 설계하여 2010년에 완공되었다. 연면적은 191.24㎡이다. 설계에서는 작품과 자연광의 관계를 주요 요소로 다루었으며, 전시공간의 인공조명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광을 유입하였다.³⁰⁾

건축물의 모서리에는 슬릿 형태의 개구부가 설치되었으며, 콘크리트 벽면에는 유리 요소가 적용되었다. 상부 채광과 백색 원통형 공간을 통해 유입되는 빛, 벽면 슬릿을 통과하는 빛 등 다양한 자연광 유입 방식이 전시공간에서 확인된다. 평면도와 건축사진에서는 층간 이동을 위한 계단과 수직적 공간 연결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지표를 적용한 결과, 개구부·반개방 경계, 투명성, 수평·수직 연결, 자연광·명암이 자료에서 직접 확인되었다. 반면 전이공간, 가변 경계, 시선 연결, 재료·마감 연속성, 입구·전이 동선, 경로 연속성, 외부경관·중경 연결, 공간 깊이·높이·층위는 확보된 자료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확인 어려움’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1] Mecenat Art Museum 평면도³¹⁾

30) Archiscene, Mecenat Art Museum by Naf Architect & Design, (2026.09.02.)
www.archiscene.net/museum/mecenat-art-museum-naf-architect/

31) ArchDaily, Mecenat Art Museum / Naf Architect & Design, (2026.09.02.)



[그림 2] Mecenat Art Museum³²⁾

[표 9] Mecenat Art Museum 공간 경계 완화 분석

분석 차원	세부 분석지표	분석 결과	확인 근거
물리적	개구부·반개방 경계	확인	벽체 모서리의 슬릿형 개구부
	전이공간	확인 어려움	확보 자료에서 명확한 전이공간 확인 어려움
	가변 경계	확인 어려움	이동·개폐 가능한 경계에 대한 직접 자료 부족
시각적	시선 연결	확인 어려움	인접 공간 간 직접적인 시선 연결 근거 부족
	투명성	확인	콘크리트 벽면의 판유리 적용
	재료·마감 연속성	확인 어려움	인접 공간 간 재료 연속 관계를 판단할 근거 부족
동선적	입구·전이 동선	확인 어려움	입구에서 내부로 이어지는 전이 방식의 직접 자료 부족
	수평·수직 연결	확인	계단을 통한 층간 연결 확인
	경로 연속성	확인 어려움	관람 경로의 연속순환 여부를 판단할 자료 부족
지각적	자연광·명암	확인	상부 채광, 벽면 슬릿 및 판유리를 통한 자연광 유입
	외부경관·중경 연결	확인 어려움	외부경관과의 직접적인 시각 연결 근거 부족
	공간 깊이·높이·층위	확인 어려움	공간 층위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근거 부족

www.archdaily.com/256181/mecenat-art-museum-naf-architect-design-2, 연구자 재구성.

32) ArchDaily, Mecenat Art Museum / Naf Architect & Design, (2026.09.02.)
www.archdaily.com/256181/mecenat-art-museum-naf-architect-design-2, 연구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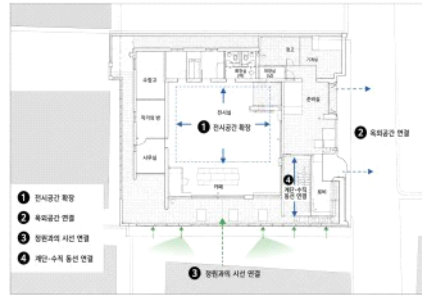
Mecenat Art Museum에서는 자연광을 유입하기 위한 개구부와 투명 요소, 계단을 통한 수직적 연결이 확인되었다. 반면 전이공간, 경로 연속성, 외부경관-중정 연결 및 재료·마감 연속성은 확보된 자료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다.

4-2.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은 서울 정릉에 위치하며, 조각가 최만린이 약 30년간 거주와 작업 공간으로 사용한 주택을 공립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한 사례이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연면적은 255.36㎡이다. 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EMA)가 리모델링 설계를 맡았으며, 2019년 공사를 완료한 후 2020년 성북구립미술관의 분관으로 개관하였다.³³⁾

리모델링 과정에서는 기존 공간 일부를 확장하여 전시공간으로 전환하고, 외부와 맞닿는 경계 일부를 개방하여 옥외공간과 연결하였다. 기존의 목재 계단과 천장 등 주요 건축요소도 유지되었다. 평면도와 실내사진에서는 전시공간에서 정원을 향한 시선 연결과 외부공간과의 관계가 확인되며, 개구부를 통한 자연광 유입도 확인된다. 또한 기존 계단을 통해 층간 이동과 수직적 공간 연결이 이루어지고, 상·하부 공간의 높이와 층위 관계가 나타난다.³⁴⁾

세부지표를 적용한 결과, 개구부·반개방 경계, 시선 연결, 투명성, 재료·마감 연속성, 수평·수직 연결, 자연광·명암, 외부경관-중정 연결 및 공간 깊이·높이·층위가 자료에서 직접 확인되었다. 반면 전이공간, 가변 경계, 입구·전이 동선 및 경로 연속성은 확보된 자료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확인 어려움'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주택에서 미술관으로의 용도 전환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변 경계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가변 경계로 포함하지 않았다.



[그림 3]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평면도³⁵⁾



[그림 4]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³⁶⁾

[표 10]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공간 경계 완화 분석

분석 차원	세부 분석지표	분석 결과	확인 근거
물리적	개구부·반개방 경계	확인	막혀 있던 부분을 덜 어내어 옥외공간과 연결
	전이공간	확인 어려움	독립적인 전이·완충공간을 판단할 직접 자료 부족
	가변 경계	확인 어려움	개폐이동 가능한 경계면 확인 어려움
시각적	시선 연결	확인	전시공간과 정원·옥외공간 사이의 시각 관계
	투명성	확인	유리 개구부를 통한 실내외부 시각 연결
	재료·마감 연속성	확인	기존 붉은 벽돌과 목재 천장·계단·문 등의 건축요소 유지
동선	입구·전이	확인	입구에서 주요 전시공간

33)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AURUM),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2026.09.02.) 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mm=4&num=9386&ss=1

34) OPENHOUSE SEOUL, 성북 선잠박물관-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2026.09.02.) www.ohseoul.org/2022/programs/성북-선잠박물관-성북구립-최만린-미술관/event/272

35) AURUM,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2026.09.02.) 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mm=4&num=9386&ss=1, 연구자 재구성.

36) 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EMA), 최만린미술관 리모델링, (2026.09.02.) www.ema.co.kr/project/065, 연구자 재구성.

적	동선	어려움	간으로 이어지는 전이 구조의 판단 근거 부족
	수평·수직 연결	확인	기존 목재 계단을 통한 층간 연결
	경로 연속성	확인 어려움	전체 관람 경로의 연속순환 여부에 대한 직접 자료 부족
지각적	자연광·명암	확인	외부 개구부를 통한 자연광 유입
	외부경관·중정 연결	확인	전시공간과 정원 및 옥외공간의 직접적인 관계
	공간 깊이·높이·층위	확인	높은 천장과 증축·확장된 공간의 층위 관계

성북구립 최만민미술관에서는 기존 건축요소를 보존하면서 폐쇄되어 있던 일부 경계를 개방하여 실내 전시공간과 옥외공간의 관계를 형성한 방식이 확인되었다. 개구부를 통한 정원 방향의 시선 연결과 자연광 유입, 기존 목재 계단을 통한 수직적 공간 연결이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반면 현재 공간에서 직접 작동하는 가변 경계와 전체 관람 경로의 연속성은 확보된 자료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다.

4-3. 안상철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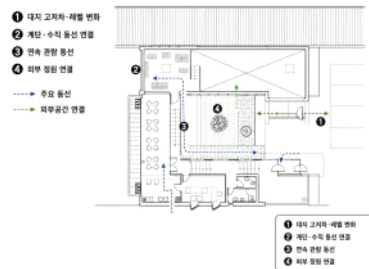
안상철미술관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사립미술관으로 건축가 안우성이 설계하였다. 연면적은 439.27㎡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다. 2008년 개관하였으며, 2013년 경기도 사립미술관으로 등록되었다.³⁷⁾ 건축은 대지의 약 8m 고저차를 활용하여 전시공간과 이동공간을 서로 다른 레벨에 배치하였다.

공간구성은 지형의 높이 차이에 따라 내부 동선이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 관람 동선은 전시공간을 지나 낮은 레벨로 이어지며 외부 정원과 연결된다.³⁸⁾ 평면도와 단면도에서는 계단과 레벨 차이를 통한 수직적 공간 연결과 전이 관계가 확인된다. 외부부를 향한 개구부는 실내에서 정원을 향한 시선 관계를 형성하며, 자연광도 개구부를 통해 실내로 유입된다. 높이와 레벨의 변화에 따라 공간의 깊이와 층위 관계도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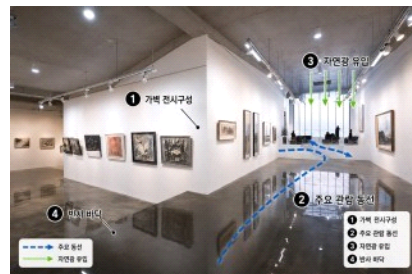
37)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AURUM), 안상철 미술관, (2026.09.02.)
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mm=4&num=2105&ss=1

38) 양주시 문화관광, 안상철미술관, (2026.09.02.)
yangju.go.kr/tour/contents.do?key=847

세부지표를 적용한 결과, 개구부·반개방 경계, 전이 공간, 시선 연결, 입구전이 동선, 수평·수직 연결, 경로 연속성, 자연광·명암, 외부경관·중정 연결 및 공간 깊이·높이·층위가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반면 가변 경계, 투명성 및 재료·마감 연속성은 확보된 자료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확인 어려움’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5] 안상철미술관 평면도³⁹⁾



[그림 6] 안상철미술관⁴⁰⁾

[표 11] 안상철미술관 공간 경계 완화 분석

분석 차원	세부 분석지표	분석 결과	확인 근거
물리적	개구부·반개방 경계	확인	외부 정원 방향의 개구부와 실내외 공간 관계
	전이공간	확인	내부 전시공간에서 외부 정원으로 이어지는 공간 전이
	가변 경계	확인 어려움	개폐이동 가능한 경계면에 대한 직접 자료 부족

39) AURUM, 안상철 미술관, (2026.09.02.)
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mm=4&num=2105&ss=1, 연구자 재구성.

40) 양주시 문화관광, 안상철미술관, (2026.09.02.)
yangju.go.kr/tour/contents.do?key=847, 연구자 재구성.

시각적	시선 연결	확인	개구부를 통한 실내 전시공간과 외부공간의 시각 관계
	투명성	확인 어려움	투명·반투명 경계 요소의 적용 범위를 판단할 자료 부족
	재료·마감 연속성	확인 어려움	인접 공간 사이의 재료·마감 연속성을 판단할 근거 부족
동선적	입구·전이 동선	확인	지형의 고저차를 따라 내부공간으로 이어지는 이동 관계
	수평·수직 연결	확인	계단과 서로 다른 레벨을 통한 공간 연결
	경로 연속성	확인	전시공간을 따라 이동한 후 외부 정원으로 이어지는 관람 경로
지각적	자연광·명암	확인	외부 개구부를 통한 자연광 유입
	외부경관·중정 연결	확인	실내공간과 외부 정원의 연결
	공간 깊이·높이·층위	확인	약 8m의 대지 고저차와 내부 레벨 변화에 따른 공간 층위

안상철미술관에서는 대지의 고저차를 활용하여 전시 공간과 이동공간이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공간구성이 확인되었다. 계단과 레벨 변화에 따른 수직적 연결, 외부 정원으로 이어지는 관람 경로, 외부 개구부를 통한 시선 관계와 공간 층위가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4-4. 토탈미술관

토탈미술관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사립미술관으로 건축가 문신규가 설계하였다. 연면적은 607.5㎡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다.⁴¹⁾ 평창동 미술관은 1992년 개관하였으며, 해당 건축물은 1993년 한국건축가협회상 본상을 수상하였다.

건축물은 경사진 대지에 배치되어 있으며, 전면에는 외부를 향한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다. 관람객은 1층 아카이브 공간을 지나 아래층 전시공간으로 이동한다. 지하 전시공간에는 기존 암벽이 일부 노출되어 있으며, 층간 이동을 통해 높은 층고의 전시공간으로 이어진다.⁴²⁾ 평면과 공간자료에서는 전이공간을 거쳐 전시공

간으로 이어지는 관람 동선과 수직적인 레벨 관계가 확인된다.

세부지표를 적용한 결과, 전이공간, 시선 연결, 투명성, 입구 전이 동선, 수평·수직 연결, 경로 연속성, 자연광·명암, 외부경관·중정 연결 및 공간 깊이·높이·층위가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반면 개구부·반개방 경계, 가변 경계 및 재료·마감 연속성은 확보된 자료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확인 어려움’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7] 토탈미술관 평면도⁴³⁾



[그림 8] 토탈미술관⁴⁴⁾

[표 12] 토탈미술관 공간 경계 완화 분석

분 석 차원	세부 지표	분석 과	확인 근거
물리	개구부·반개	확인	외부 방향의 유리 경

41)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AURUM), 토탈 컨템포러리 미술관, (2026.09.02.)
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mm=4&num=440&ss=1

42) 한국관광공사, 토탈미술관, (2026.09.02.)
korean.visitkorea.or.kr/detail/ms_detail.do?cotid=7b8a527c-9ec6-458a-8aae-b94127afaa1b

43) AURUM, 토탈 컨템포러리 미술관, (2026.09.02.)
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mm=4&num=440&ss=1, 연구자 재구성.

44) VISITKOREA, Total Museum, (2026.09.02.)
english.visitkorea.or.kr/svc/whereToGo/locIntrdn/rgnContentsView.do?vcontId=89411, 연구자 재구성.

적	방 경계	어려움	계는 확인되나 개방·반개방 경계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전이공간	확인	1층 아카이브 공간에서 하부 전시공간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공간 전이
	가변 경계	확인 어려움	개폐·이동 가능한 경계면에 대한 자료 부족
시각적	시선 연결	확인	전면 유리창을 통한 실내와 외부의 시각 관계
	투명성	확인	외부를 향한 전면 유리 경계
	재료·마감 연속성	확인 어려움	인접 공간 간 동일·유사 마감의 연속 관계를 판단할 자료 부족
동선적	입구·전이 동선	확인	1층 아카이브에서 하부 전시공간으로 이어지는 이동
	수평·수직 연결	확인	층간 이동을 통한 전시공간 연결
	경로 연속성	확인	1층에서 지하 전시실과 하부 전시공간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관람 경로
지각적	자연광·명암	확인	전면 유리창을 통한 자연광 유입
	외부경관·중정 연결	확인	외부 방향으로 열린 유리창을 통한 외부경관 관계
	공간 깊이·높이·층위	확인	대지 경사, 층간 레벨 변화 및 높은 층고의 하부 전시공간

토탈미술관에서는 지형의 경사와 층간 이동을 이용한 단계적 공간구성이 확인되었다. 1층에서 지하 및 하부 전시공간으로 이어지는 동선에서는 공간 높이와 레벨의 변화가 확인되며, 전면 유리창은 외부와의 시선 연결과 투명성을 형성한다. 다만 전면 유리창의 존재만으로 개구부·반개방 경계 또는 가변 경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해당 지표는 확보된 자료에서 직접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구분하였다.

4-5. 소다미술관

소다미술관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디자인·건축 테마의 사립미술관이다. 공사가 중단된 기존 찜질방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활용하여 SOAP 건축사사무소가 리모델링하였으며, 2014년 완공되었다. 연면적은 657.41㎡이다.⁴⁵⁾ 기존 콘크리트 구조체를 유지하고

컨테이너 모듈을 결합하여 전시공간을 구성하였다.⁴⁶⁾

소다미술관은 기존 찜질방 구조를 활용한 Bath Gallery와 탈의실을 재구성한 Cube Gallery 등의 실내 전시공간으로 구성된다.⁴⁷⁾ 기존 노출콘크리트와 새로 설치된 전시벽이 함께 사용되며, 기존 구조와 새로운 전시공간의 관계가 나타난다. 컨테이너 모듈은 전시 및 문화 콘텐츠의 변화와 이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본 연구는 실내공간을 분석 범위로 설정하였으므로 Roofless Gallery, Open Gallery 및 Roof Deck 자체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내공간과 외부공간의 관계가 자료에서 직접 확인되는 경우에만 분석하였다.

세부지표를 적용한 결과, 개구부·반개방 경계, 가변 경계, 시선 연결, 재료·마감 연속성, 수평·수직 연결, 자연광·명암, 외부경관·중정 연결 및 공간 깊이·높이·층위가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컨테이너 모듈은 설계 설명자료에서 해체와 이동 가능성이 제시되어 가변 경계 항목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전이공간, 투명성, 입구·전이 동선 및 경로 연속성은 확보된 자료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확인 어려움’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9] 소다미술관 평면도⁴⁸⁾

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mm=4&num=7074&ss=1

46) 경기뉴스광장, 당신이 몰랐던 ‘미술의 맛’ ③ 화성 소다미술관, (2026.09.02.)

gnews.gg.go.kr/news/news_view.do?newsType=N&number=202409271043556463C049&s_code=C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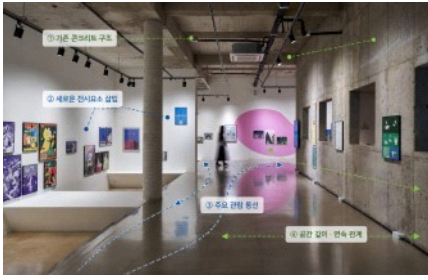
47) 소다미술관, ABOUT, (2026.09.02.)

www.museumsoda.org/about

48) AURUM, 소다미술관, (2026.09.02.)

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mm=4&num=7074&ss=1, 연구자 재구성.

45)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AURUM), 소다미술관, (2026.09.02.)



[그림 10] 소다미술관⁴⁹⁾

[표 13] 소다미술관 공간 경계 완화 분석

분석 차원	세부 분석지표	분석 결과	확인 근거
물리적	개구부·반개방 경계	확인	기존 콘크리트 구조체의 개방된 부분과 전시공간 사이의 경계 관계
	전이공간	확인 어려움	독립적인 실내 전이·완충공간을 판단할 직접 자료 부족
	가변 경계	확인	컨테이너 모듈의 해체·이동 및 콘텐츠 변화에 대응하도록 계획된 공간 구성
시각적	시선 연결	확인	개방된 구조를 통한 인접 전시공간 사이의 시각 관계
	투명성	확인 어려움	투명·반투명 경계 요소의 지속적인 적용을 판단할 자료 부족
	재료·마감 연속성	확인	기존 노출콘크리트 구조와 마감이 실내공간에 연속적으로 유지
동선적	입구·전이 동선	확인 어려움	입구에서 주요 전시공간까지의 전이 방식을 판단할 자료 부족
	수평·수직 연결	확인	1·2층 평면과 계단에 의한 공간 연결
	경로 연속성	확인 어려움	실내 관람 경로만을 기준으로 한 연속·순환 여부 판단 자료 부족
지각적	자연광·명암	확인	개방된 경계와 외부 접점을 통한 자연광 유입
	외부경관·중정 연결	확인	실내공간에서 외부 전시공간으로 이어지는 시각적 관계
	공간 깊이·높이·층위	확인	기존 구조체와 서로 다른 전시공간 구성에서 나타나는 공간 층위

49) AURUM, 소다미술관, (2026.09.02.)
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mm=4&num=7074&ss=1, 연구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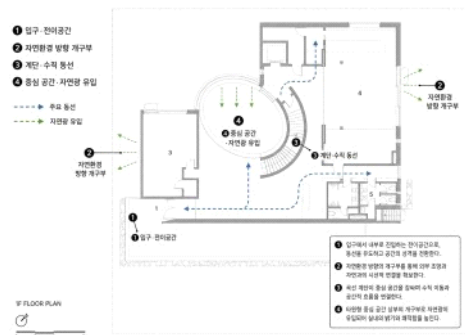
소다미술관에서는 기존 건축 구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전시 요소를 삽입한 공간구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동과 해체가 가능한 컨테이너 모듈이 기존 구조와 함께 사용되어 가변 경계와 관련된 공간 표현이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4-6. 유동릉미술관

유동릉미술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미술관으로, 유이화(ITM Yooehwa Architects)가 설계하였다. 지상 2층, 연면적 700㎡ 규모이며, 유동릉의 건축 및 예술작품을 전시한다. 내부는 3개의 전시실과 라이브러리, 티 라운지, 뮤지엄 스토어 등으로 구성된다.⁵⁰⁾

미술관 입구는 외벽을 따라 형성되며 내부로 진입하기 위한 전이공간으로 계획되었다. 건물 중심에는 타원형 매스가 배치되고, 매스와 자봉 사이의 틈을 통해 자연광이 내부로 유입된다. 외부로 향한 개구부와 투명한 경계 요소를 통해 실내에서 주변 자연환경을 향한 시선 관계가 형성된다. 중앙 공간을 따라 배치된 계단은 1층과 2층 전시공간을 연결하며, 높이와 층위의 변화도 확인된다.⁵¹⁾

세부지표를 적용한 결과, 개구부·반개방 경계, 전이공간, 시선 연결, 투명성, 입구·전이 동선, 수평·수직 연결, 자연광·명암, 외부경관·중정 연결 및 공간 깊이·높이·층위가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반면 가변 경계, 재료·마감 연속성 및 경로 연속성은 확보된 자료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확인 어려움’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11] 유동릉미술관 평면도⁵²⁾

50) 유동릉미술관, MUSEUM, (2026.09.02.)
www.itamijunmuseum.com/sub01/sub01.php

51) 유동릉미술관, MUSEUM, (2026.09.02.)
www.itamijunmuseum.com/sub01/sub01.php



[그림 12] 유동릉미술관⁵³⁾

[표 14] 유동릉미술관 공간 경계 완화 분석

분석 차원	세부 분석지표	분석 결과	확인 근거
물리 적	개구부·반개 방 경계	확인	주변 자연환경을 향해 형성된 개구부
	전이공간	확인	외벽을 따라 형성된 입구 공간을 전이공간으로 계획
	가변 경계	확인 어려움	개폐·이동 가능한 경계면에 대한 직접 자료 부족
시각 적	시선 연결	확인	1층 주요 공간에서 주변 자연환경을 향한 시각 관계
	투명성	확인	창과 개구부를 통한 실내·외부 시각 연결
	재료·마감 연속성	확인 어려움	인접 공간 사이의 동일·유사 마감 연속성을 판단할 근거 부족
동선 적	입구·전이 동선	확인	외벽을 따라 입구에서 내부로 이어지는 전이 관계
	수평·수직 연결	확인	중앙 계단을 통한 1·2층 연결
	경로 연속성	확인 어려움	전체 관람 경로의 연속·순환 여부를 판단할 직접 자료 부족
지각 적	자연광·명암	확인	타원형 매스와 지붕 사이의 틈을 통한 자연광 유입
	외부경관·중	확인	개구부를 통한 1층

52) ArchDaily, Itami Jun Museum / Itm Yoehwa Architects, (2026.09.02.)
www.archdaily.com/1036765/itami-jun-museum-itm-yoehwa-architects, 연구자 재구성.

53) ArchDaily, Itami Jun Museum / Itm Yoehwa Architects, (2026.09.02.)
www.archdaily.com/1036765/itami-jun-museum-itm-yoehwa-architects, 연구자 재구성.

	정 연결		공간과 주변 자연환경의 관계
공간 깊이·높이·층위	확인		중심 타원형 공간과 1·2층 구성에 따른 공간 층위 변화

유동릉미술관에서는 입구의 전이공간, 주변 자연환경을 향한 개구부, 중앙 공간을 따라 배치된 계단 및 자연광 유입이 확인되었다. 중앙 공간의 계단은 1층과 2층 전시공간을 연결하며, 상부에서 유입되는 자연광도 자료에서 확인된다. 외부로 향한 개구부는 주변 자연환경과의 시선 관계를 형성한다. 반면 가변 경계, 재료·마감 연속성 및 전체 관람 경로의 연속성은 확보된 자료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다.

4-7. 사례 간 비교 및 종합분석

앞서 6개 사례에 동일한 세부지표를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 간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각 항목의 확인 빈도는 사례의 우열을 평가하기 위한 점수가 아니라, 선정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간 표현을 파악하기 위한 단순 집계로 활용하였다.

[표 15] 사례별 공간 경계 완화 세부지표 비교

세부 분석지표	①	②	③	④	⑤	⑥	확인 수
물리적							
개구부·반개 방 경계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어려움	확인	확인	5/6
전이공간	확인 어려움	확인 어려움	확인	확인	확인 어려움	확인	3/6
가변 경계	확인 어려움	확인 어려움	확인 어려움	확인 어려움	확인	확인 어려움	1/6
시각적							
시선 연결	확인 어려움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5/6
투명성	확인	확인	확인 어려움	확인	확인 어려움	확인	4/6
재료·마감 연속성	확인 어려움	확인	확인 어려움	확인 어려움	확인	확인 어려움	2/6
동선적							
입구·전이 동선	확인 어려움	확인 어려움	확인	확인	확인 어려움	확인	3/6
수평·수직 연결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6/6
경로 연속성	확인 어려움	확인 어려움	확인	확인	확인 어려움	확인 어려움	2/6
지각적							

자연광·명암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6/6
외부경관·중정 연결	확인 어려움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5/6
공간 깊이·높이·층위	확인 어려움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5/6

① Mecenat Art Museum, ②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③ 안상철미술관, ④ 토탈미술관, ⑤ 소다미술관, ⑥ 유동룡미술관.

‘확인’은 사진, 평면도, 단면도 또는 설계 설명자료에서 해당 공간 표현이 직접 확인된 경우를 의미하며, ‘확인 어려움’은 확보된 자료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확인 수’는 해당 지표가 직접 확인된 사례 수이며, 사례의 우열이나 지표의 가중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사례 비교 결과, 수평·수직 연결과 자연광·명암은 6개 사례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개구부·반개방 경계, 시선 연결, 외부경관·중정 연결 및 공간 깊이·높이·층위는 각각 5개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투명성은 4개 사례에서, 전이공간과 입구·전이 동선은 각각 3개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재료·마감 연속성과 경로 연속성은 각각 2개 사례에서 확인되었으며, 가변 경계는 소다미술관 1개 사례에서만 확인되었다.

사례 간 반복적으로 확인된 항목의 관계를 종합하면, 개구부·시선 연결·투명성은 시각적 개방·연속성과 관련되고, 수평·수직 연결 및 전이 관련 항목은 공간·동선 연결성과 관련된다. 자연광·명암, 외부경관·중정 연결, 공간 깊이·높이·층위는 시각적 확장성과 관련된다. 또한 하나의 공간 요소가 물리적·시각적·동선적·시각적 관계에서 함께 확인되는 사례가 나타나 다차원적 중첩성으로 정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정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공간 경계 완화 디자인 특성을 시각적 개방·연속성, 공간·동선 연결성, 시각적 확장성 및 다차원적 중첩성의 네 가지로 도출하였다.

[표 16] 사례 비교를 통한 공간 경계 완화 디자인 특성

디자인 특성	주요 근거	사례 비교 결과
시각적 개방· 연속성	개구부·반개방 경계, 시선 연 결, 투명성	개구부·시선 연결 5/6, 투명성 4/6
공간· 동선 연결성	수평·수직 연 결, 전이공간, 입구·전이 동 선	수평·수직 연결 6/6, 전이 관련 항목 3/6
시각적 확장성	자연광·명암, 외부경관·중정 연결, 공간 깊	자연광 6/6, 외부공간·공간 층위 5/6

	아·높이·층위	
다차원적 중첩성	물리적·시각적·동선적·시각적 관계	6개 사례에서 복수의 분석 차원이 함께 확인됨

표 15와 표 16의 비교 결과, 개구부·시선 연결·투명성은 인접 공간 및 외부공간과의 시각적 관계를 형성하는 요소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시각적 개방·연속성으로 정리하였다.

공간·동선 연결성은 6개 사례 모두에서 확인된 수평·수직 연결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계단과 레벨 변화는 서로 다른 공간의 연결과 관련되었으며, 경로 연속성은 2개 사례에서만 확인되어 공통 특성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시각적 확장성은 자연광·명암, 외부경관·중정 연결, 공간 깊이·높이·층위가 다수 사례에서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실내공간에서 외부 관계와 공간의 깊이 및 층위를 인식하는 데 관련된다.

다차원적 중첩성은 하나의 공간 요소가 둘 이상의 경계 관계와 관련되는 양상에서 도출하였다. 개구부는 물리적 경계와 시선·자연광의 관계에, 계단과 레벨 변화는 동선과 공간 층위의 관계에 함께 나타났다.

가변 경계는 소다미술관 1개 사례에서만 확인되었으며, 재료·마감 연속성과 경로 연속성도 각각 2개 사례에서 확인되어 사례별 표현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네 가지 디자인 특성은 선정된 6개 사례의 비교 결과에 한정되며, 모든 소규모 미술관의 일반적 특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5. 결론

본 연구는 소규모 미술관의 공간 경계 완화 디자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고찰과 정성적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의 규모 논의를 바탕으로 연면적 1,000㎡ 미만을 사례 선정 범위로 설정하고, 국내 5개 사례와 일본 1개 사례를 선정하였다. 모든 사례에 물리적·시각적·동선적·시각적 분석 차원과 동일한 세부지표를 적용하였으며, 사진, 평면도, 단면도 및 설계 설명자료에서 직접 확인되는 공간 표현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세부지표의 확인 사례 수는 사례 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을 파악하기 위한 단순 집계로 활용하였다.

첫째, 시각적 개방·연속성이 확인되었다. 개구부와

시선 연결은 각각 5개 사례, 투명성은 4개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선정 사례에서는 물리적 경계를 완전히 제거하기보다 개구부와 투명 요소를 통해 인접 공간 및 외부공간과 시각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간·동선 연결성이 확인되었다. 수평·수직 연결은 6개 사례 모두에서 확인되었으며, 계단과 레벨 변화가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전이공간과 입구·전이 동선은 각각 3개 사례, 경로 연속성은 2개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수평·수직 연결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정리하였으며, 경로 연속성은 사례별 표현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시각적 확장성이 확인되었다. 자연광 명암은 6개 사례 모두에서 확인되었으며, 외부경관·중정 연결과 공간 깊이·높이·층위는 각각 5개 사례에서 나타났다. 자연광, 외부공간과의 관계, 높이와 레벨 변화는 공간의 깊이와 층위를 인식하는 데 관련된 요소로 확인되었다.

넷째, 다차원적 중첩성이 확인되었다. 하나의 공간 요소가 둘 이상의 분석 차원과 관련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개구부는 물리적 경계와 시선·자연광의 관계에, 계단과 레벨 변화는 동선과 공간 층위의 관계에 함께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간 경계 완화가 복수의 공간 관계를 통해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변 경계는 소다미술관 1개 사례에서만 확인되었으며, 재료·마감 연속성과 경로 연속성도 각각 2개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 항목은 공통적인 특성에 포함하지 않고 사례별 표현으로 구분하였다. 사례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시각적 개방·연속성, 공간·동선 연결성, 시각적 확장성 및 다차원적 중첩성의 네 가지 디자인 특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동일한 분석기준을 복수의 소규모 미술관 사례에 적용하여 공간 경계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 경계 완화 디자인 특성을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선정 사례에서는 개구부, 시선, 자연광, 외부공간, 수직 동선 및 공간 층위 등 다양한 공간 관계를 통해 경계 완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소규모 미술관의 공간계획에서 개별 요소뿐만 아니라 공간 간 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연면적 1,000㎡ 미만의 국내 5개 사례와 일본 1개 사례를 대상으로 공개된 사진, 도면 및 설계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향후에는 사례 범위의 확대와 현장조사, 관람객 행

동관찰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디자인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케빈 린치, 허샤오쥔 역, 『도시의 이미지』, 중국 화하 출판사, 2001
2. 고경호, 김덕수, Kyeong Ho Ko, & Duk Su Kim, '건축 공간의 경계 모호성과 투명성',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2
3. 임채진, 박무호, '박물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객 움직임의 상관성 (I)',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06
4. 최진석, 김문덕, '국내 소규모 미술관의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공간체험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0
5. 최진원, 강재철, '청년 임대아파트 공용 공간에 대한 공생(Symbiosis)디자인 적용 연구', 한국디자인리서치, 2021
6. 문정민, 안우진, 고성룡, '복합기능을 수용하는 소규모 및 극소규모 미술관의 단위전시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1
7. 손광호, 김강섭, '지역 미술관디자인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5
8. 리밍샤, 조정형,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부산시립미술관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디자인학회, 2022
9. 유정, 남경숙, '사용자 인터랙션 체험을 위한 현대 미술관 전시 공간 디자인 연구 분석', 한국공공디자인학회, 2018
10. JAGOŠOVÁ, Lucie, 'The concept of small museums from an international and local perspective: starting points for further research in the Czech Republic', Muzeológia a kultúrne dedičstvo, 2023
11. Tišliar, Pavol, Jagošová, Lucie, 'Defini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mall museums in the Czech Republic', Muzealnictwo, 2024

12. 김정훈, '디지털 이미지를 사용한 영화 오프닝 타이틀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의 편집증적 비평방법(Paranoiac-critical Method)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9
13. 김소희, '미술관 전시디자인에 나타나는 롤랑바르트의 기호학적 표현요소 연구',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21
14. 김영조, '소규모 미술관의 전시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7
15. 최진석, '소규모 미술관의 실내공간에 나타나는 공간체험 요소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1
16. gnews.gg.go.kr
17. korean.visitkorea.or.kr
18. www.archdaily.com
19. www.archiscene.net
20. www.aurum.re.kr
21. www.emaa.co.kr
22. www.itamijunmuseum.com
23. www.museumsoda.org
24. www.ohseoul.org
25. www.yangju.go.kr